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THE GIFT OF FIRE

불의 선물

KBS교향악단 제808회 정기연주회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1919)** ㉠ 23’
I. Stravinsky The Firebird Suite (1919)

- I. Introduction (3’) 도입부
- II. L’Oiseau de feu et sa danse & Variation de l’oiseau de feu (2’) 불새의 춤 & 불새의 변주
- III. Ronde des princesses (6’) 공주들의 론도
- IV. Danse infernale du roi Kastcheï (5’) 마왕 카스체이 무리들의 지옥의 춤
- V. Berceuse (4’) 자장가
- VI. Final (3’) 피날레

스크라빈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 ㉠ 24’
A. Scriabin Prometheus, The Poem of Fire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33’
I. Stravinsky The Rite of Spring

- I. L’Adoration de la Terre (17’) 대지에 대한 경배
- II. Le Sacrifice (16’) 희생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늘 공연 중 스크라빈의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 작품은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무대 조명 색채가 변화될 수 있는 점 공연 관람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PIETARI INKINEN CONDUCTOR

©Andreas Zihler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그라모폰〉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다.

그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3/24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데뷔하였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에서 바그너의 〈탄호이저〉 프로덕션을 이끌었다.

그는 2021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하였으며, 2023년에는 〈니벨룽의 반지〉 전막 프로덕션을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에서 ‘최고 지휘자 상’을,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였으며,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던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산토리 홀에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의 실황 녹음을 남겼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JEAN-YVES THIBAUDET PIANIST

장-이브 티보데는 고전과 현대 레퍼토리를 가리지 않는 우아한 음악성과 통찰력 있는 접근으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힌다. 특히 클래식 음악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관심사로 유명한데, (직접 피아노로 편곡하기도 하는) 오페라와 재즈에 대한 시도 외에도 전 지구적 친분을 통해 영화, 패션, 시각예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 녹음 활동도 활발히 해서, 티보데는 70장 이상의 앨범과 6개의 영화 사운드트랙에 참여했다.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교육자로, 콜번 음대 최초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으며, 콜번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티보데의 명의로 장학금을 수여한다.

티보데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며 보스턴 교향악단과 함께 대표 레퍼토리인 거슈윈의 F장조 협주곡과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연주하는 유럽 투어에 나선다. 이후 토론토 교향악단과 볼티모어 교향악단과 시즌 첫 공연으로 거슈윈의 협주곡을 연주하며, 내슈빌 교향악단과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과의 협연도 계획되어 있다. 이 밖에도 노스캐롤라이나 교향악단, 피츠버그 교향악단, 시카고 교향악단과 생상스의 협주곡 연주 역시 예정되어 있다.

2023년 11월 티보데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함께 하차투리안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으며, 녹음은 추후 데카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이후 휴스턴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베른 교향악단, 뉴월드 교향악단, 샌디에이고 교향악단과 라벨의 G장조 협주곡을 무대에 올리며, 12월에는 몬트리올 교향악단과 함께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또한 예사 페카 살로넨이 이끄는 파리 관현악단과 함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을 연주하며, 이후 살로넨과 재회해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과 함께 스크랴빈의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를 무대에 올린다. 티보데는 헬싱키 필하모닉과도 『프로메테우스』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오케스트라 협연 일정에 더해, 티보데는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고티에 카뮈송과 리사 바티아슈빌리와 함께 트리오를 구성해 미국 투어에 나서며 하이든, 라벨, 멘델스존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드뷔시의 전주곡집에 대한 탐구 역시 계속되어 유럽에서 열리는 리사이틀에서 1권과 2권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1996년의 전설적인 전주곡집 녹음 또한 한정판 LP 음반으로 재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마이클 펜스타인과 함께하는 『Two Pianos: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프로그램 역시 이어가며 거슈윈, 리처드 로저스 등등의 작품을 피아노, 성악,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들려준다.

피아노 장-이브 티보데

티보데는 데카 전속 아티스트로, 방대한 녹음 활동을 하며 두 번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고, 두 개의 에코 어워즈, 독일 음반비평가상, 디아파종 황금상, '음악 세계의 충격'상, 에디슨 상, 그라모폰 상을 수상했다. 2021년 발매한 최근의 솔로 앨범 『Carte Blanche』는 이전에 티보데가 녹음한 적 없는, 가장 사적인 피아노 독주곡들이 담겨 있다. 티보데의 디스코 그래피 중 주목할 만한 다른 작품으로는 마린 알습이 지휘하는 볼티모어 교향악단과 녹음한 번스타인의 『불안의 시대』, 드뷔시와 사티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 녹음,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 녹음과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녹음, 재즈 앨범 『Reflections on Duke』와 『Conversations With Bill Evans』, 그리고 티보데가 직접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한 아리아 모음인 『Aria-Opera Without Words』가 있다.

티보데는 패션, 영화, 자선 활동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티보데는 아론 지그만이 담당한 영화 『웨이크필드』의 사운드트랙에 피아니스트로 참여했는데, 이는 지그만이 처음으로 자신이 작곡한 영화 사운드트랙에 스스로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은 사례였다. 또한 다리오 마리아넬리가 맡은 『어톤먼트』(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수상)와 『오만과 편견』,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맡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2012년)과 『프렌치 디스패치』(웨스 앤더슨 감독)에 피아노 솔로로 참여한 바 있다.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의 영화 『바람의 신부』에 카메오로 출연해, 영화 내내 티보데의 연주가 흘러나온다. 2004년에는 오스피스 드 본 자선 경매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티보데의 공연 의상은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디자인한다.

티보데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5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7살에 공식적인 무대를 가졌다. 12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알도 치콜리니와 라벨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뤼세트 데카브를 사사했다. 15살이 되던 해 원내 1등상을 수상했고, 3년 뒤에는 뉴욕시의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에서 우승했다. 티보데의 방대한 수상 목록에는 프랑스의 '음악의 승리상'에서 평생공로상이자 최고의 영예인 'Victoire d'honneur'상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할리우드 볼은 티보데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며 음악적 공로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프랑스 문화부가 수여한 3급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자였던 티보데는 2012년에 2급 훈장을 수여받았다. 2020년에는 루마니아 내 프랑스 예술문화산업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고티에 카퀴송과 함께 클로 부조 음악 와인 축제의 공동 예술자문을 맡고 있다.

스트라빈스키 / ‘불새’ 모음곡 (1919)

I. Stravinsky / The Firebird Suite (1919)

작곡연도 1919년

초연 1919년 11월 5일, 스위스 제네바

편성 플루트 2(1대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2(1대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1,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탬버린, 실로폰, 하프, 피아노, 현 5부

연주시간 약 23분

〈불새〉는 이집트 신화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 20세기 초를 뒤흔든 천재 무용수 니진스키, 안무가 미하일 포킨, 발레 뤼스를 이끈 디아길레프...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 음악 걸작(불새, 봄의 제전, 페트루슈카) 중 첫 작품인 〈불새〉를 이야기 할 때 발레 뤼스를 빼드릴 수 없다. 러시아의 민족적 요소와 스트라빈스키가 놀랍도록 영리하게 활용한 원시주의적 요소가 엮보이는 1막 2장의 이 작품은 1910년 파리 초연 당시부터 대성공을 거두었다.

동화작가 아파나시예프의 줄거리에 불새의 전설을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으로 담아낸 이 곡은 이국적이고 새로운 것에 늘 목말라 했던 1910년의 파리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세기의 무용수 니진스키와 안무가 미하일 포킨의 협업으로 당시 가장 주목받던 발레 뤼스의 퍼포먼스와 결합한 〈불새〉는 단숨에 28세의 스트라빈스키를 스타덤에 올렸다. 1막 2장의 구성과 역동적인 타악기의 리듬, 현란하고 다채로운 음향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더해져 이제는 오케스트라 단독 레퍼토리로 더 익숙해졌다. 공연을 곧 앞둔 마감이 촉박한 상황에서 작곡가를 바꿔 스트라빈스키를 선택한 디아길레프의 안목이 없었더라면, 안무가 미하일 포킨과 긴밀히 협력하며 음표가 무용수들의 몸짓이 되고, 무용수들의 춤이 음악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한 스트라빈스키의 재능이 아니었더라면 한 세기가 더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걸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제1장. 거대한 성의 정원, 황금 열매가 열린 눈부신 나무에서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불새를 본 왕자 이반은 홀리듯 불새를 포획한다. 마음 착한 이반은 애원하는 불새를 놓아주고, 불새는 고마움의 표시로 몸통의 깃털을 이반에게 선물한다. 마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깃털이다. 마왕(카스체이)의 성의 정원에서 불새를 만난 이반은 곧 마왕에게 붙잡히고, 불새의 도움으로 깃털을 사용해 마왕을 물리치게 된다. 불새는 담레로 몸통의 깃털을 이반에게 선물하는데, 마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깃털이다. 1장이 시작되는 배경은 카스체이성의 정원으로 사냥을 나갔던 이반이, 마왕 카스체이가 사는 성에 들어갔다가 그 정원에서 불새를 발견한다. 왕자는 곧 마왕에게 붙잡히고 말지만 불새의 도움으로 마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제2장. 마왕 카스체이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마법에 걸려 있던 성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12명의 공주와 기사 여럿이 깨어나면서 그들은 우아한 춤을 선보이고, 눈부신 미모의 차레브나에게 이반은 한눈에 반하고야 만다. 차레브나는 마법의 성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길 권하지만, 불새의 깃털로 마왕을 이긴 이반은 차레브나와 함께 춤춘다. 마감이 촉박한 터라 한 부분이 완성될 때마다 스트라빈스키의 악보는 바로바로 발레뤼스 측에 전해졌다. 완성된 음악에 바로 춤을 맞춰보는 무용수들 덕분에 스트라빈스키는 오히려 춤과 음악이 완벽히 결합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써나갈 수 있었다.

〈불새〉는 러시아 민족 선율이 주는 이국적인 정취, 첼레스타나 하프처럼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와 클리산도와 같은 음향적 효과, 탄탄한 음악적 구조, 팀파니부터 탐탐까지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가 주는 육체적 리듬감으로 흔히 초연 창작 발레가 가질 수 있는 아쉬운 부분 -단조롭고 밋밋한 동작으로 완성도와 밀도가 모자랄 수 있는-을 완벽히 메꿔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저 음악만으로도 순식간에 진홍색과 금빛 깃털을 가진 불새와 선한 마음을 가진 왕자 이반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휘황찬란한 벨 에포크(Belle époque)를 지나고 있던 파리지연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리듬의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진다.

스크랴빈 /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

A. Scriabin / Prometheus, The Poem of Fire

작곡연도 1908년~1910년

초연 1911년 3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 3, 피콜로, 오보에 3,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 콘트라 바순, 호른 8, 트럼펫 5,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차임벨, 심벌, 큰북, 탐탐, 글로켄슈필, 하프 2, 첼레스타, 오르간, 현 5부

연주시간 약 24분

그리스 신화 속 티탄이자 ‘최고의 사기꾼’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제왕 제우스에 맞서 용기를 내 신들의 불을 훔쳐 인류에게 가져다주었다.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랴빈(1872~1915)에게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타오르는 창조적 에너지와 황홀한 인간 의식의 확장을 상징하는 무엇이었다. 신비주의, 신지학, 니체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스크랴빈은 인류의 가장 큰 소명은 물리적 세계를 벗어나 우주와 광대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스크랴빈은 음악이 초월적인 의식의 차원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그는 처음에는 쇼팽과 리스트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으나 20세기 초 이르러 우주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듯 교향곡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 3부작은 신성한 시(1905)에서 환희의 시(1908)로 이어졌고,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1908~1910)로 마무리되었다.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는 섬뜩한 상태와 조용하고 불타는 강렬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음색으로 시작된다. “신비로운 화음”으로 알려진 이 화음은 4음(A, D#, G, C#, F#, B)으로 구성된 6화음이다. 스크랴빈은 이 화음을 ‘플레로마의 화음’이라고 부르며 모든 신성의 구현을 암시했다. 악보에서 그는 이 음색을 “스모키”라고 묘사했다. 모든 화성의 기능이 순수한 소리로 녹아든 화음이다.

우주적인 화음에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광대하고 점진적 크레센도와 가속으로 전개된다. 이 곡은 하나의 악장으로 전개되며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여정을 암시한다. 하모니와 멜로디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솔로 피아노는 인간을 상징하는 주요 주인공이 된다. 황홀한 드라마에는 의식의 여명, 창조적 의지, 황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한 상징적 암시가 담겨 있다. “신비로운 화음”은 끈질기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케스트라가 모음으로만 노래하는 우주적 합창으로 힘을 더한다가 빛나는 F# 장조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 Op.60’ 악보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색채 키보드’(Tastiera per luce) 파트였다. 색채 키보드는 특정 음을 연주하면 해당 음에 맞는 색을 투사하는 장치로, 음악과 색채가 결합한 스크랴빈이 내면에서 느끼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나 초연(1911년) 당시에는 이런 상상을 제대로 구현할 악기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이 파트를 제외한 채로 초연되었으며, 스크랴빈은 그의 내면 속에서 한없이 펼쳐지는 음악과 색채를 결합한 풍경을 청중들과 나누고자 했던 꿈을 생전에 이루지 못했다.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며 조명 기술의 발달로, 특정 음에 맞춰 색채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져 스크랴빈이 상상했던 색채 키보드 연주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두 음 이상의 화음에서 스크랴빈이 정확히 표현하고자했던 색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후대의 우리에게도 동시에 울리는 화음을 과연 어떤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으며, 해석과 상상의 여지가 남은 만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조명의 색채 너머, 작곡가 내면의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조명 디자인 나한수 **협력 디자인 및 어시스턴트** 김누리, 서승범

일렉트릭션 강영구, 박성수, 신경배, 이호연, 주정현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I. Stravinsky / The Rite of Spring

작곡연도 1911년~1913년

초연 1913년 5월 29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 3(제3 플루티스트는 피콜로를 겸함), 피콜로, 알토 플루트, 오보에 4(제3 오보에 1은 잉글리시 혼을 겸함), 잉글리시 혼 1, 클라리넷 3(제3 클라리네티스트는 베이스 클라리넷을 겸함), Eb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1, 바순 4(제3 바순니스트는 콘트라바순을 겸함), 콘트라바순, 호른 8(바그너 튜바 겸함), 피콜로 트럼펫, 트럼펫 4, 베이스 트럼펫,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2, 팀파니 2, 타악기(베이스 드럼, 탐탐, 트라이앵글, 탬버린, 귀로우, 크로탈), 현 5부

연주시간 약 33분

음악 역사의 걸작 - 이교도 의식의 이야기

스트라빈스키의 가장 유명한 발레 작품 '봄의 제전'을 작곡하던 1910년, 그는 '봄의 제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서사에 의존하기 보다 여러 예술 형식을 결합시켜 러시아의 오랜 이교도 의식을 담아낸 음악적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 발레 뤼스(러시아 발레)의 창시자인 디아길레프의 격려를 받은 스트라빈스키는 1911년 친구인 화가 니콜라스 로리히와 협력해 본격적 작품 구상에 돌입했다. 작곡은 그의 다른 발레 작품인 <봄의 제전>, <페트루슈카>의 초연으로 인해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작품은 1913년 3월 8일에 완성되었다.


1913년의 스캔들

피에르 몽퇴의 지휘로 1913년 5월 29일, 파리 상젤리제 극장에서 니진스키의 안무와 로리히의 세트 및 의상으로 <봄의 제전>이 초연되었다. 이 세기의 스캔들은 음악의 지옥 같은 리듬보다도, 도발적인 발레 안무에서 촉발되었다. 니진스키는 발을 '앙 드당(En dedans)'으로 한 제스처, 갈고리 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긴 팔, 구부러 지거나 아치형 자세의 소소한 짓밟는 동작, 광기어린 소용돌이, 광란의 점프, 무용수의 몸 상태가 의심되는 탈구된 연체동물 같이 흐느적 대는 몸 등, 비 전통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안무 동작들이 구성되어있었다. 초연 당시 폭동에 가까웠던 관객의 부정적인 태도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8회 공연 후 공연은 사라져야만 했다.

혁명적인 작품, 오케스트라의 눈부신 향연

<봄의 제전>을 살펴보면 오케스트라적으로 피콜로(가장 높은 음역의 악기)부터 베이스(가장 낮은 음역의 악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역을 갖춘 악기들이 포진해있다.

곳곳에서 스트라빈스키가 동경했던 거장 림스키코르사코프 혹은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악상의 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전형적인 러시아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인한 음색의 혼합으로, 색채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리듬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원시적 색채"의 계시를 통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다양한 악기들이 병렬로 사용되어 첼로를 비롯한 스트링 전체, 호른, 플루트, 클라리넷, 베이스 드럼까지 각자의 음색으로 연주하는 효과가 엇보인다. 스트라빈스키는 전통에 반하는, 뻔함에서 벗어난 도발적이고 상징적인 음악 작품을 써내려갔다.



이 음악적 에너지의 결작은 엄청난 창의성의 결합물이라 할 수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모든 음악적 요소를 종합하여 음향 효과와 극적인 힘을 강조하는 미적 다양성을 만들어 냈다. 반음계주의와 거친 화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례 없는 파열의 상호작용과 ‘날 것 같은’ 음색의 집합을 통해 당시 음악적 담론을 폭발시킨 이 작품은 리듬을 해방시켰다. 고전 낭만주의적 한계에서 음조의 조화를 해방시켜 20세기 음악적 현대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혁명적 태도를 구체화하는데 일조해 이후 모든 장르의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교도 러시아의 풍경”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발레는 두 주요 섹션(대지에 대한 경배와 희생)이 두 개의 거대한 소리 블록으로 흘러간다. 서사가 아닌 그저 음악적 내러티브라는 원래의 의도대로, 초반은 대지와 봄을 기리는 의식을 연상시키며,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선택된 젊은 처녀의 희생으로 곡은 절정을 이룬다. 스트라빈스키는 스스로 소멸하고 재생하는 자연의 숭고한 상승, 즉 살아있는 우주의 총체적이고 패닉에 휩싸인 솟구침을 표현하고자 했다.




I. 대지에 대한 경배 (L'Adoration de la Terre)

막이 오르기 전 도입부 서주 (Introduction)는 자연의 각성, 모든 민감한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두려움을 환기 시킨다. 목관악기는 진보의 개념, 다시 태어난 자연이 흘러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전주곡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의 공포, 한낮의 태양 앞에서 느끼는 신성한 경외심을 엿볼 수 있다. 각 악기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피어나며, 거대한 우주 전체의 일부로 작용한다.

봄의 태동: 젊은 여자들의 춤 (Les Augures Printanieres: Danses des Adolescentes)

첫 번째 파트는 불규칙한 악센트가 8개의 호른과 함께 어우러져있다. 박자와 카운터 박자가 서로 경쟁하듯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잉글리쉬 호른은 다조적 맥락을 담아낸다. 복잡한 덩어리가 된 오케스트라는 곡이 끝날 때까지 열광적으로 형태를 쌓아간다.

유괴 의식 (Jeu du Rapt)




박자를 벗어난 팀파니의 타격이 불러일으키는 소리의 파열과 폭발이 이어진다. 어딘가 홀린 듯한 집단 의식의 장면이 강조된 악센트와 역동적 대비를 통해 구현된다. 러시아 민속풍의 분위기 속에서 관악기가 연주하는 싱글 또는 더블 아포지아투라(해결음에서 2도 위 아래의 인접음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 이 불협화음은 이어지는 해결음을 연주함으로써 해결됨)가 우아함과 경쾌함을 더한다. 악장 마지막, 처음의 인기 테마가 다시 등장한다.

적대하는 두 부족의 의식 (Jeux des Cités Rivalentes)

격렬하게 대조되는 두 부족의 대립을 드러낸다. 오케스트라는 각 부족을 대표하는 악기들이 차례로 서로 대립하는 블록으로 처리된다. 상승하는 로켓 스케일에 이어 때로는 현악기와 관악기로 연주되는 트릴이 이 전쟁 같은 대결을 뒷받침하며 긴장감을 더한다.

현자의 행렬 (Cortège du Sage)



중첩된 모티프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활용한다. 특히 복잡한 다중 리듬은 악장 마지막에 갑자기 중단되는 오케스트라의 폭발과 함께 진행된다.

1부의 마지막이자 정점인 ‘대지의 춤 (Danse de la terre)’이 시작되기 전 아주 짧은 명상 장면이 이어진다. 열광적이고 활기찬 이 춤은 본질적으로 리드미컬하다. 웅장한 마지막 크레센도에서는 구르는 베이스 드럼과 팀파니,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에서 나오는 빠른 상승 스트로크, 트릴, 트레몰로, 포르티시모 악센트가 전체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II. 희생 (Le Sacrifice)

신비로운 야상곡인 이 음악의 전주곡은 여성들의 춤과 함께 반복되는 미묘하고 거의 증발하듯 반복되는 멜로디를 기반으로 한다.

젊은 여자들의 신비한 모임 (Cercles Mystérieux des Adolescentes)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며 긴장감이 넘친다. 이 곡은 린스키코르사코프가 수집한 러시아 민요에서 유래했다. 이 악장은 템포의 가속과 강력한 크레센도로 끝나고, 다음 악장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극적인 포르티시모 해머 화음으로 이어진다.

거칠고 무술적 분위기의 ‘선택받은 여자에 대한 찬미’ (Glorification de l'Élue)는 정말 놀라운 힘의 감각을 보여준다. 스트라빈스키는 고음의 솟구침, 활기차고 경쾌한 분위기(포르테에서 포르티시모), 격렬한 글리산도, 옥타브 페달, 호모 리듬 기악 그룹과 오스티나토 등 다양한 역동적인 효과를 사용하여 동작을 이끌어 간다.

‘조상에 대한 초혼 (Evocation des Ancêtres)’은 잔인한 남성 춤으로 선보인다. 강인한 면모를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는 큰 규모의 크레센도와 에코 효과와 같은 역동적인 효과를 고집했다.

조상에 대한 의식 (Action Rituelle des Ancêtres)

시간을 표시하고 행렬을 불러일으키는 저음의 노래 위에 구체화되었다. 이 행렬은 짧게 반복되는 반음계 모티브(잉글리시 호른으로 연주)에 의해 움직이고, 드뷔시의 영향과 동양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대위법(알토 플루트로 연주)으로 완성된다.

신성한 춤 (Danse Sacrale)

활기찬 악장이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스트라빈스키는 오케스트라를 여러 개의 음계를 가진 하나의 악기로 취급하여 리듬 악센트의 극치인 스타카토가 연주된다.

글 | 김나희(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KBS교향악단 🔍



KBS교향악단 제807회 정기연주회

무한히 밀려오는 감동, 선율로 그린 황홀한 풍경

하프 선율을 타고 풍성한 감정선이 흘러나오자 객석 곳곳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조용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없는 황홀의 순간이 찾아올 때 반응하는 몸의 감각이다. 음악이 참으로 신비롭다는 것이, 선율로 풍경을 그려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일깨운 시간이었다.

KBS교향악단이 정명훈의 지휘 아래 외국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연주로 가을밤을 환상적으로 물들였다. 이날 공연 1부에서 KBS교향악단은 베토벤 '삼중 협주곡 C장조'를 선보였다. 정명훈이 지휘자이자 피아노 연주자로 무대에 섰고 한재민과 김수연이 양옆에서 화음을 맞췄다. 삼중 협주곡인 만큼 같은 선율을 서로 다른 악기로 듣는 즐거움이 있는 무대였다. 단체출범기에 부드럽게 진입하듯 첼로가 먼저 들어와 그 뒤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가 더해지면서 세대와 악기를 뛰어넘는 화음이 완성됐다. 정명훈이 연주하느라 지휘를 못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KBS교향악단과 세 연주자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며 '삼중 협주곡'의 매력을 살렸다.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과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을 연주한 2부는 이날 공연의 주제가 왜 '선율로 그리는 풍경'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무대였다.

두 곡 모두 프랑스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손꼽힌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은 모리스 마테를 링크의 동명 희곡을 기반으로 사랑과 죽음으로 치달는 비극을 담은 작품이다. 감미로운 하프 선율로 시작하는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사랑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발레를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사랑 이야기를 품은 음악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우아하고 비극적인 사랑, 춤으로 표현된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각각 교차하면서 감정의 폭을 깊고 진하게 건드렸다. 곡과 상관없이 명연주에는 여운을 질게 하는 어떤 송고함이 깃들어있는데 관객들은 곡이 끝나고 정명훈의 손이 다 내려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며 그 송고함을 완벽하게 완성해냈다. 곡마다 감탄이 쏟아진 2부가 끝난 후 KBS교향악단은 라벨의 곡 3악장을 앙코르로 선보이며 이날 연주의 대미를 장식했다.

글 | 류재민(서울신문 기자)

Concert Information

KBS교향악단 제807회 정기연주회
2024년 10월 18일(금) 20:00 롯데콘서트홀

지휘/피아노 | 정명훈
바이올린 | 김수연, 첼로 | 한재민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 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 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 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 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부약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김나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 한벨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김우진+ 윤여훈**

첼로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클라리넷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현

트롬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데이비드 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유지홍+

클라리넷

조인혁+

호른

Samuel Seidenberg+

트롬본

김성수+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공연지원파트)

대리 전현정 최나희
사원 허효정

공연사업팀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바이올린

인턴십 2기

김수연

제2바이올린

박예진 이예령

비올라

이태형

첼로

김유림 심수연

바순

최찬열

호른

민예원

트럼펫

이영훈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후원회원 안내의 편의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	--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KDB산업은행
----------------	---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	--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연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	---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쉴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구매 문의 : 1670 - 2152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  www.kbsymphony.org
-  [kbsymphonyorchestra](#)
-  www.youtube.com/@KBS-Symphony_Orchestra
-  facebook.com/kb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